

광주 청년 창작자들, ‘지속 가능성’을 묻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광주 청년 문화예술인 유출’토론회
소득 불안정·부당대우 호소...“창작지원금·발표 기회 절실”

“광주에 남아 창작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광주를 떠나는 이유를 두고 시민사회와 현장이 머리를 맞댔다. 인구 140만 명이 붐볐던 도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청년문화 예산, 불안정한 예술노동 구조 속에서 광주가 더 이상 청년 문화인의 ‘실험 무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청년 문화인은 왜 광주를 떠나는가’를 의제로 원탁 토론회가 지난달 2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주관했으며, 지역 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 전공생과 청년 문화기획자·예술인·감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진행한 사전 설문에서 청년 문화인 43명에게 “졸업 후, 혹은 3년 뒤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라고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2%가 “수도권이나 부산 등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화·예술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14%에 달했다. 반면 “광주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30.2%에 그쳤다.
하지만 조건이 달라지면 이야기도 달라진다. 일 경험·인턴십 등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활동 준비 수단 지급과 네트워킹 지원 등이 이뤄질 경우 응답자의 88.4%는 “광주에 남아 활동하겠다”고 답했다. 어떤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떠나겠다고 밝힌 이들은 7%에 불과했다.
설문 결과는 청년 문화인들이 꼭 광주를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안정과 창작 환경만 마련된다면 충분히 지역에 머물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발제에 나선 임명규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광주의 인구 구조를 먼저 짚었다. 올해 5월 광주 인구는 139만9880명으로 140만 명 선이 무너졌다. 당초 2040~2045년께나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던 수치가 20년이나 앞당겨진 셈이다. 임 대표는 이를 ‘청년 유출 → 출생 감소 → 고령화 → 지역 경기 악화 → 다시 청년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결과로 진단했다.
광주시의 청년정책 예산은 양적으로는 크게 늘었



‘청년 문화인은 왜 광주를 떠나는가’ 원탁토론회가 최근 빛고을시민문화관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 문화인들의 모습.

다. 2019년 49건 316억 원이던 사업은 2025년 96건 3346억 원으로 6년 만에 10배 넘게 확대됐다.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분야 예산이 국비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결과다.
그러나 임 대표는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청년들

의 삶이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주의 청년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단기·단발형 일자리 중심이라 청년이 원하는 직종과 일자리 수요가 맞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광주시가 2023년 발표한 ‘청년 예술인 역량강화 및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서도 이런 현실이 확인된다. 지난 1년간 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비율은 37%였고,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없다는 응답이 6.7%, 2000만 원 미만이 64%였다. 예술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광주에서 ‘청년 예술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두고 ‘행사는 많지만 실속이 없다’,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광주가 청년들에게 ‘선택받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적 중심이 아닌 실연·기획 등 전공 기반의 장기 인턴십 제공, 시립예술단 등 선발 과정에서 지역 인재 우선 선발 및 청년 예술인 채용 쿼터제 도입, 도심 빈 건물을 활용한 무료 연습실·작업실 마련, 신진 예술인의 데뷔 프로젝트·출판 등 실행비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대표는 “광주 청년예술인은 소득 불안정, 생계 부담, 부당대우, 높은 창작 비용 등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다”며 “생계 문제와 진입 장벽, 예산·홍보의 한계를 복합적으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청년 예술인의 지역 정착은 물론 광주 문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먹빛 위로 내려앉은 피아노 선율

융복합 피아노 콘서트 ‘빛의울림’
17일 전남대 민주마루



먹빛이 번져가는 화면 위로 피아노 선율이 실려 없다. 진진한 수목의 흐름과 따스한 낭만주의 음악이 포개지며, 시각과 청각이 맞물린 새로운 감각의 무대가 펼쳐진다.
융복합 피아노콘서트 ‘빛의울림’이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열린다. 전남대 대학원 G-ROOT 사업에 선정된 이번 공연은 세계적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와 공연기획자이자 아플레넷 대표 최혜지가 함께 준비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공연은 낭만주의 피아노 연주에 미디어아트 영상을 실시간으로 더해, 음악과 화면이 서로 호흡하듯 움직이는 무대를 선보인다. 피아노의 섬세한 소리와 빛·색채의 이미지가 어우러지며 새로운 형태의 공연 경험을 전달할 예정이다.
연주에는 전남대 대학원 음악학과 재학생인 김수진·최혜지·이서영이 참여해 각각 소품 ‘발라드 3번’, 브람스 ‘6개의 소품 Op.118’, 슈만 ‘환상소곡집 Op.12’를 들려준다. 세 곡의 분위기와 흐름에 맞춰 이이남 작가의 영상이 무대 후면에서 실시간으로 송출되며 음악과 자연스럽게 호흡하는 무대를 만든다.
공연 해설은 전남대 음악학과 박은식 교수가 맡

아 작품의 배경과 낭만주의 음악의 특징을 설명하며 관객의 이해를 돕는다.
미디어아트 협업을 맡은 이이남 작가는 전통 회화와 영화를 디지털로 재해석하는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 프로그램에도 작품이 초청된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빛과 수목, 색채를 활용한 영상으로 피아노 연주와 시각적 요소가 조화하는 무대를 구축한다.
기획을 총괄한 최혜지는 전남대 대학원 음악학과 석사과정 재학생으로, 지역 청년예술인의 무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술단체 아플레넷을 창단해 꾸준히 공연을 만들어온 청년 기획자다.
최혜지는 “광주에는 청년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다”며 “이번 시도가 청년 예술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료 무료, 네이버예약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日 ‘민주문학’ 12월호에 문병란 시인·진보작가 마쓰다 비교연구 수록

진보문학 대표 문예지...5월 광주 개최 국제심포지엄 비평문 소개

일본 진보 문학을 대표하는 문예지 ‘민주문학’ 12월호에 지난 5월 18일 광주에서 개최된 ‘마쓰다 도키코 국제심포지엄에 대해’〈광주일보 5월 20일자 17면 보도〉라는 비평문이 크게 실려 화제다.
‘민주문학’은 1965년 창설된 ‘일본민주주의문학동맹’이 그 해부터 발행해온 유서 깊은 문예지. 1993년 이 문학동맹이 ‘일본민주주의문학회’로 거듭난 뒤로도 전국에 지부를 두고 꾸준히 진보 문학을 이끌어 왔다.
이번 ‘민주문학’ 12월호는 723호에 해당하는데, 마쓰다 도키코 회 대표로 활동 중인 에자키 준평론가의 ‘마쓰다 도키코(松田解子) 국제심포지엄에 대해’라는 글이 실렸다.
에자키 평론가는 “한·일 수교 60주년, 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이하여 민주, 평화,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그 의미를 살려 해방 전부터 조선인의 민주, 평화, 인권 문제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마쓰다 도키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다시 주목받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날인 5월 18일에 “마쓰다 도키코를 현장(顯彰)하기에 적절하다고 하는 설정이 내게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움이었다”라고

소감을 토로했다.
심포지엄 개최 계기는 2024년 8월 메이지대학에서 개최된 제75회 ‘역사교육협의회’ 전국대회에서 차타니 주로쿠 아키타현 역사교육협의회 회장이 발표문 ‘한국으로 확장되는 마쓰다 도키코 문학과 생애’ 속에서 언급한 내용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차타니 회장과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가 개입한 한국에서의 마쓰다 도키코 연구사’라고 규정하며 김 교수와의 연구 활동을 소개했다.
책에는 심포지엄 내용에 대해 다룬 내용도 수록돼 있다. 에자키 평론가 자신의 ‘하나오카 사건과 마쓰다 도키코’ 발제에 대해선 대표작 ‘오린 구전’ 집필 당시 마쓰다 도키코가 “1950년대부터 집요하게 추적한 ‘땅 밑의 사람들’의 경우 적어도 이 작품을 씀으로써 침략전쟁을 일으킨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다”라고 고백했다고 기술했다.
또한 차타니 회장의 발제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결과, 하정웅 명예관장과의 만남과 연작 목판화 ‘하나오카 이야기’에 대해 등을 논했다고 정리했다.
에자키 평론가는 김정훈 교수가 발제한 ‘문병란과 마쓰다 도키코의 저항정신’. 특히 ‘마쓰다 도키코를 평가한 문병란’의 항목을 주목, 문병란 시인



이 광주·전라남도 지역의 지도자로서 활약한 모습과 함께 대표시 중 하나인 ‘식민지의 국어 시간’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나아가 김 교수가 일본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저항정신을 비교한 부분에 주목했다.
에자키 평론가는 5월 18일 저녁 일본에서 참가한 강연자와 발제자가 광주일보 인터뷰에 응했고, 다음날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영령 164명을 기리는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다고 기록했다.
에자키 준 평론가는 1946년 대만에서 태어나 아이치현에서 자랐다. 아이치현립대학교 국문과 졸업 후 1975년부터 신일본출판사에 근무하며 일본 저항문학의 거목 고바야시 다카지 편집 등에 주력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한 사람의 보험비지
전 국민의 경제부담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병원 입원 알바】
고수의 보장
보험 가입 필
http://X&3@%M...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STOP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생명보험협회

소해보험협회

IGA보험GA협회